

경남 교육 소식



창녕동포초, 동·식물 사랑으로 기업가 정신을 기른다

경남 창녕 동포초등학교(교장 고영정)는 2016학년도에 이어 2017학년도 까지 비즈를 기업가 정신 함양 연구시원 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해피팜 편! 동아리원은 1차 토개농장과 2차 금평이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만져보고 살펴 보면서 동물들의 생태와 특성을 이해하며 동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배웠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가는 건전한 행복 한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동아리 활동 시간 중 학생들이 비싼 일상에서도 여유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교사(교사 정간화)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미술 시범 등을 하며 학생들의 삶이 즐겁고 활달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동아리 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포초등학교는 비즈를 기업가 정신함양 연구시원 학교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포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행복한 꿈을 키우는데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희기자 khl@k

경남 창원초, '의형제 간 책 읽어주기'

경남 창원초등학교(교장 박혜숙)에서는 1학년과 6학년이 교내에서 만나며 무척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학년 동생들은 6학년 언니,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귀여워하며 잘 보살핀다. 이는 작년부터 실시한 1학년과 6학년의 의형제 맺기가 이루어졌던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러한 활동이 있기 전에는 1학년과 6학년은 서로 서먹한 관계였는데 의형제 맺기를 통해 친근한 사이가 됐다.

이후 2017학년도에는 1학년, 6학년뿐만 아니라 창녕초 병설유치원 동생과 5학년도 의형제 맺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아침 도서시간에 '책낭개 입학식'과 연계한 '의형제 간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

김희기자 khl@k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

경남교육청,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남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7년 학생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의 하나로 28일 창원 크라운 호텔에서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방역기관, 도청 담당자, 학교 관리자·행정실장·담임 및 보건교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이장 등이 '감염병 관리 및 결핵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행성 이하선염을 주제로 이뤄졌다. 또 학교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활동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상환원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방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구성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뿐만 아니라 유식주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필진현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한 담당자는 "이번 훈련으로 학교에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감염병 관리 조직 역할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 한지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여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구성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만 아니라 유식주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필진현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다. 훈련에 참여한 한 담당자는 "이번 훈련으로 학교에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감염병 관리 조직 역할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모더레이터 양성 연수를 실시했다.

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간담회

경남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29일 경남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대표자 및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위탁업체 역할을 강화하고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업체위탁 공모기간 연장, 수강료 책정 방법 개선, 안정적인 위탁운영 기간 확보, 업체선정 과정의 투명성 향상 등 업체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탁업체 대표자들은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초, '의형제 간 책 읽어주기' 한글의 과학과 우수성 배우다

창원초, '초정리 편지' 배유안 작가 만나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창원초등학교(교장 박혜숙)는 6월 21일 천주관에서 4-5학년 185명을 대상으로 '초정리 편지'의 배유안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배유안 작가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은 '초정리 편지'로 2006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린이 그림책, 교양도서 등 도서판과 학교에서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작가이다.

이번 강연은 '초정리 편지'의 저자배경과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이야기, 세종대왕의 리더십 그 외 책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한글의 과학성과 위대함을 깨닫고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직접 강제 집에 있는 '초정리 편지'의 일부분을 낭독하며 느낌을 표출하였고 강연 후 미리 준비한 질문에 작가가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작가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한 한 5학년 안상준 학생은 "책 속 장문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는데,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읽을수록 감동이 더 깊어지고 싶어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교 최성민 선생은 "작가와의 만남 준비기간 동안 교실에서 책을 읽었고 또 소나리에 함께 읽었던 경험은 매우 뜻깊었으며 작가를 만난 계기가 아이들에게 독서의지를 심어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창원초등학교는 작가와의 만남 이외에도 '문학캠프', '예쁜 노랫말 발표회'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문학의 향기를 전하며 '책 읽는 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헌신할 나이를 예정이다.

김희기자 khl@k

초여름 밤, 운동장 한편 수놓은 잔별들의 노래

창원용지초, '여름밤, 별 헤는 밤' 가족콘서트 성료

이런 저런 학교 운동장에는 삼삼오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공이 이리든 온돌이 신음이 운동장과 구도심 주택에 퍼져나가고 추억의 동요를 함께 부르는 시니어 밴드의 무대와 일변인 오쿠다 마사시씨의 비눗방울 쇼가 이어졌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비눗방울 쇼는 어른들도 순간순간 감탄을 자아낸 만큼 신기하고 유쾌했다. 마지막 무대에선 아프리카 타악기리듬에 맞춰 에니메이션 라이언의 주제를 함께 부르며 여름, 이이할 것 없이 주인공 심바를 구하기 위해 목청 높여 주문을 외었다.

엔딩곡을 부를 때 무대 한쪽에서 작은 비눗방울들이 흩날려 나와 마치 온하수를 뿌려놓은 듯 무대와 객석 위를 반짝이며 여름 밤하늘을 수놓았다. 관객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지난 6월 21일 저녁 7시부터 약 80여 분 동안 용지초등학교(교장 고영민) 운동장에서 펼쳐진 찾아가는 가족콘서트 '여름 밤, 별 헤는 밤' 공연장의 모습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으로 용지초등학교와 국제비버스 경남본부에서 업무협약 기념의 일환으로 용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



공연은 용지초등학교 교육가족 및 지역민 150여 명의 관객 외에도 골목골목에 울려 퍼진 음악소리에 이끌려 가던 길을 멈추고 운동장 담장 너머로 공연을 즐긴 행인들도 여럿이었다.

고영민 교장은 "공연을 통해 세대와 계층의 벽을 허물고 교육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기자 khl@k

함양마천중, 나라사랑 태극기 동산 만들기 호국보훈 행사 실시

경남 함양 마천중학교(교장 이동만)는 6월 2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친환경 아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주제로 마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동산 만들기' 호국보훈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학생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마천중학교 태극기 동산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비닐개비 형태로 전교생 및 학교원인 개인별로 제작하였으며 이 태극기를 교문 진입로 동산에 설치하고 등·하교시 자신의 태극기를

유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게 했다.

또한, 이날 학생회 중심으로 태극기의 내력, 태극기에 담긴 뜻, 태극기에 대한 애정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태극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마천중학교 진교학살희생 3학년 이수연 학생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니 국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게양 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천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마음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기자 khl@k

Advertisement for 'Sinking Block' (싱킹블럭) educational toys. It features a large central image of a child playing with blocks, surrounded by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cognitive and motor skills. A table at the bottom lists different product models and their prices.

싱킹블럭은 상상력자극·협동성배양·창의력개발·균형감각 발달·집중력향상·심리적인정성을 높여줍니다. (주)가야지엔이 ☎ 02)866-8921, 055)242-8921